

'오월 주먹밥' 먹고 코로나 극복 힘 내세요

오월 어머니들 밤샘 작업

40년전 나눔·연대 정신 담아

518개 만들어 대구에 전달

40년 전, 광주 어머니들은 시민군인 우리 이웃들을 위해 주먹밥을 봉쳐 건넸다. 시민들이 군화 발로 걷어차이고 진압봉으로 맞는 것을 지켜보며 '밥 먹고 힘 내 이겨내자'며 동포인 이웃들에게 나눠준 주먹밥이다.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겨내고 주먹밥을 통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이웃, 내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5월 어머니들'이 16일 새벽, 대구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을 봉쳤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주먹밥은 1980년 5월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과 동네 부녀자들이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나눠준 음식이다.

나눔과 연대의 마음이 담긴 주먹밥을 전달, 대구가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취지다.

오월어머니회 회원들 5명은 이날 새벽 0시부터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 자리에서 몇 시간동안 주먹밥을 봉쳤다.

광주 주먹밥 1호점인 '밥콘서트' 직원 10명도 함께했다.

오월어머니회 이명자 관장(70)은 갖은 뜨거운 밥에 참기름과 깨를 붓고 휘젓으며 밥을 비볐다.

이 관장은 "뜨겁지만 이렇게 해야 주먹밥이 잘 뭉쳐지고 식어도 고소하니 맛있었다"고 했다. 그는 "40년 전, 그날부터 주먹밥을 만들어온 우리 어머니들의 비법"이라고 고백했다.

식당 한 칸에서는 어머니들이 직접 담긴

묵은 지를 씻고 있었다. 3년간 숙성된 광주식 김치다. 3명의 어머니들은 이 묵은 지를 펴서 김발에 올린 뒤, 강황과 소고기를 섞은 밥을 곱게 펼쳐 얹은 다음 깻잎을 썰어 넣고 뭉쳤다.

시작한 지 30분쯤 됐을까. 도시락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이 준비한 518개의 도시락에는 묵은 지 주먹밥 외에 찰주먹밥, 강황찰주먹밥 등 3종류 모두 들어 있었다.

준비할 때만 해도 주먹밥이 3종류라 준비한 식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탁구공 크기로 해 만들기로 했다. 대략 64g 정도였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응원차 도착해 어머니들과 함께 나머지 도시

락 손이 커졌다. 오월어머니회 김형미(56) 사무총장은 "1980년, 광주가 계엄군 총칼에도 무너지지 않았듯,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도 코로나19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5시께 5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도시락 510개가 만들어졌다. 어머니들은 주먹밥 외에 연잎줄기 나물, 제육볶음, 바나나, 방울 토마토, 삶은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만들어 도시락에 넣었다. 또 도시락마다 "힘내요 대구! 응원해요 광주!" 응원엽서를 넣어 30개씩 17박스를 완성했다.

이명자 관장은 "40년 전보다 고급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 맛도 뛰어나고 당시 나눔과 연대의 정신까지 담았다"면서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도시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회 관장은 "40년 전보다 고급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 맛도 뛰어나고 당시 나눔과 연대의 정신까지 담았다"면서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도시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회 관장은 "40년 전보다 고급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 맛도 뛰어나고 당시 나눔과 연대의 정신까지 담았다"면서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도시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16일 새벽 서구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보낼 주먹밥 도시락 518개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8:42 달뜨기 02:06 달지기 12:05

큰 일교차
고기압 영향으로 낮기온 올라 포근하겠다.

광주	맑음	2/16	보성	맑음	-1/16
목포	맑음	4/13	순천	맑음	2/18
여수	맑음	5/16	영광	맑음	3/14
나주	맑음	0/16	진도	맑음	5/15
완도	맑음	5/12	전주	맑음	2/14
구례	맑음	-1/17	군산	맑음	3/13
강진	맑음	1/16	남원	맑음	-2/15
해남	맑음	2/16	흑산도	맑음	6/16
장성	맑음	-1/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0	
	면바다(북)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면바다(남)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안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1.0~2.0	
	면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5~2.5	
	면바다(동)	남서~서 1.0~2.0	남서~서 0.5~1.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보통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0:25	08:16
목포	13:37	20:16
여수	09:38	03:10
	21:19	15:05

◇ 주간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	☀	☀	☀	☀	☀	☀
5/19	9/13	2/17	5/20	9/19	6/18	6/18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피해자 급증...사직강요 등 '코로나 갑질'도 기승

9년간 재해 승인자 15배 늘어

대부분 스트레스·우울증 고통

#. 직원 A씨는 사장의 과도한 업무지시에 줄곧 시달려 왔다. 심지어 사장은 쉬는 날도 아랑곳 않고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는가 하면, 사적인 연락도 서슴지 않았다. 사장은 A씨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A씨는 불면증을 겪게 됐다. 사장의 해고 위협과 괴롭힘은 계속됐고 A씨는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

되기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난 9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부당 해고 등 갑질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이 만성피로증후군, 호르몬 분비 기능 저하 현상 등 신체적 장애와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단법인 한국직업건강강화협회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들은 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4명에서 2016년 27명, 2017년 43명, 2018년 61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자(131명) 중 61%(88명)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집중장애와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호소하는 재해자도 3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에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거나 무급휴가를 강요당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 한달 간 코로나 관련 갑질 제보가 62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내용으로는 무급휴가 강요 275건, 연차강요 91건, 해고·권고사직 76건, 임금삭감 55건 등이었다. 코로나 확산세에 갑질 피해 제보는 3월 첫째주 237건에서 둘째주 376건으로 1.6배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개학 연기 급여 손실 공무직 수당 선지급

광주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급여 손실을 본 조리원과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에게 수당을 선지급하는 등 생계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의 연 임금 총액에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80만원을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 90만원 중 45만원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는 이번 주 중 준비 기간 3일을 출근하고 정액 급식비

13만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임금은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6개 직종 1912명이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2일부터 출근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3월 임금이 감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부터 지역 노사 관계 안정을 통한 활기찬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

주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에는 ▲청년노동인권 보호 ▲노사상생 일터혁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구축 등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